

풍성한 바순 음색으로 전하는 힐링 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V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풍부한 음색의 목관악기 '바순'으로 전하는 실내악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다음달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체임버 시리즈 IV' 무대를 연다. 광주시향 목관 파트 바순의 매력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는 바순리스트 이우광(수석), 박병준(차석), 김남훈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강다영이 함께한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4 출연진. (왼쪽부터) 바이올리니스트 강다영, 바순리스트 수석 이우광, 차석 박병준·김남훈.

바이젠본 바순 소품곡부터 탱고 모음곡까지 대중이 사랑하는 다양한 음악 매력 들려줘

이번 무대는 바이젠본, 보짜의 바순 곡을 비롯해 거슈인 재즈음악, 몬티의 민속무곡, 탱고 모음곡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첫 무대는 바이젠본(J. Weissenborn)의 '3대의 바순을 위한 6개의 소품곡'이다. 이 곡은 클래식 애호가와 바순 연주자들에게 손꼽히는 곡이다. 곡이 처음 창작된 배경, 아름다운 멜로디, 훌륭한 유머가 담긴 음악으로, 바

순의 매력을 선보일 곡이다. 두 번째 곡 프랑스 작곡가 보짜(E. B. Ozza)의 '3대의 바순을 위한 디베르티스망'은 20세기 프랑스 실내악의 전형적인 표현력과 멜로디 스타일을 잃지 않으며 작곡된 곡이다. 바순의 매력과 테크닉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공연 후반부는 거슈인(G. Gershwin)의 '아이 갓 리듬(I got Rhythm)'과

'내가 사랑한 남자(The Man I Love)'가 연주된다. 거슈인의 재즈 넘버인 이 두 곡은 재즈계의 클래식 같은 곡이다. 이어 몬티의 '차르다시'가 연주된다. 헝가리 민속무곡 '차르다시' 음계와 리듬을 가져와 새롭게 작곡한 것으로, 서정적인 곡으로 출발해 빠르고 격정적으로 바뀌는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3대의 바순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다영 협연으로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탱고 모음곡으로 꾸며진다. 피아졸라(A. Piazzolla)의 '리베르탱고(Libertango)', '오블리비언(Oblivion)'을 시작으로 마르티네즈 '3

대의 바순을 위한 탱고', 가르델(Gardel)의 '포르 우나 까베자(Por Una Cabeza)', 밀바(Milva)의 '라 콤파르시타(La Cumparrita)'를 3대의 바순으로 선사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대중이 사랑하는 다양한 곡들이 바순의 아름다운 음색으로 펼쳐질 예정이다"며 "다채로운 음악 여행을 통해 감동과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V'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누구나 즐기는' 전시 환경 조성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내 수어영상 등 제작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이 장애인·비장애 관객 모두를 위한 전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 공개해 눈길을 끈다. <사진> 해당 영상은 관람객 누구나 어린이박물관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어 해설 제작에는 청각장애인 수어해설사가 참여해 정확도를 높였다. 영상에서는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이라는 전시 주제에 따라 고고학자, 소장품관리자, 보존과학자, 전시기획자, 교육연구사 등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다양한 역할과 각 전시 공간의 체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각 전시 공간에 배치한 QR코드를 통해 개인 휴대전화로 감상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돼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장벽 없이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전시 감상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박물관 전시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 한국사의 새벽을 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8일부터 박물관대학 강좌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8일 "오는 18일부터 6월13일까지 '제29기 박물관 대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역사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올해 박물관대학은 한국사의 새벽이었던 광주 역사의 진정한 힘을 알리기 위해 '광주, 한국사의 새벽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기존 강의 중심 강좌에서 탈피해 강사와 청중 간 소통형 강좌를 위해 콜로키움 강의를 도입했다. 강좌는 강의 7회, 현지답사 1회로 구성했다. 김대중 탄신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이 지역에 남긴 정신적 유산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4월18일-8월18일)와 연계해 '김대중이 남긴 유산과 고민', '5·18 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박성강 기자

또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요 역할을 해 온 광주 역사에 대해 '광주의 역사적 뿌리, 마한', '후백제 첫 도읍지, 광주'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기독교'까지 통시대적으로 살펴본다. 강의와 연계해 전북 전주 일대 후백제 문화유산을 답사(참가비 별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박물관대학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메약(<http://www.gwangju.go.kr/gjhf>)에서 가능하다. (신청순 100명)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062-613-5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박물관대학은 광주 역사의 힘과 진정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강좌로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광주의 시선으로 광주 역사를 올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실전 문화기획' 배우고 싶다면?... 청년문화허브 '호랭이스쿨' 도전

오는 15일까지 4기 접수

청년문화허브가 오는 15일까지 실전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론과 성공사례 중심이 아닌 문화 기획 실무를 경험해보는 '호랭이스쿨'은 기획 입문과정, 기획 실무, 프로젝트 실습, 현장 문화활동 연결 및 컨설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

되며 문화기획자 지망생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현직 기획자, 기획 능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창작자, 문화예술 전공 대학(원)생 등 만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호랭이스쿨 1-3기 수료생들은 포트 과정과 함께 현장에서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3기 광주시장상을 수상한 최혜지 참여자가 '아르플레닛'이라는 청년예술인 육성 클래스 공연기획단



호랭이스쿨 3기 교육생

체를 설립해 예술대학 졸업 후 공연 기회가 없는 연주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수료생들이 호랭이스쿨에서 익힌 실무능력을 활용해 기획자, 창작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

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여자에게는 프로젝트 실습비, 아지트 공간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허브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지방 지사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